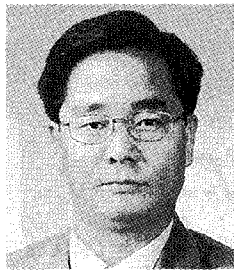


하반기 사료수급동향 및 전망



홍 순 찬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1. 2001년 사료시장 개황

올해의 우리나라 배합사료 산업은 영국의 BSE(소해면상뇌증)과 구제역 발생의 여파로 연초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여왔다.

우리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영국 및 유럽지역의 BSE 파동은 전세계적인 축산물 소비위축을 초래했고,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구제역이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내적인 문제로는 금년부터 쇠고기의 수입량제한이 완전히 철폐되고 생우수입까지 예견되고 있던터여서 이같은 BSE 및 구제역 파동은 양축농민의 사육심리를 극도로 위

축시켜 그 결과가 배합사료 생산감소로 이어졌다.

이와같은 사유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금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5월말 현재 전년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쇠고기 수입개방과 함께 유럽지역의 BSE 파동으로 인한 쇠고기 소비량감소와 생우수입에 대한 우려 등으로 비육우사료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전년 동기대비 20%나 크게 감소함으로써 그 동안 국내 사육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낙농용 사료도 BSE 파동과 수입개방에 대한 우려로 전년동기 대비 6.7% 감소하여 여타 축종에 비해 큰 폭의 감소를 보여 축우사료의 생산량감소가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축우와 같이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양돈사료는 금년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5.6% 증가했으며, 양계사료는 비교적 소폭인 1.9%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중 전반적인 배합사료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계

및 양돈산물을 비롯한 축산물 가격이 비교적 좋은 가격대를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는 사육심리가 안정되고 배합사료 생산량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위축되어 있는 비육우 사육심리가 안정되지 않는 한 큰 폭의 배합사료 생산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서 금년도 사료생산량은 전년도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체별로 보면 주로 대가축 사료에

표1. 2001년 축종별 생산실적(누계)
(단위 : 톤, %)

구 분	2001. 1~5 (A)	2000. 1~5 (B)	누계대비 A/B(%)	
양	육 추	131,578	139,113	94.6
	산 란	772,221	786,721	98.2
	육 계	583,710	598,815	97.5
계	총 계	118,428	113,062	104.7
	소 계	1,605,937	1,637,711	98.1
양 돈	2,189,860	2,074,693	105.6	
낙 농	757,599	812,381	93.3	
비 육	1,192,405	1,490,981	80.0	
기 타	306,692	247,672	123.8	
계	6,052,493	6,263,438	96.6	

표2. 2001년 단계별 생산실적(누계)
(단위 : 톤, %)

구 분	2001. 1~5 (A)	2000. 1~5 (B)	누계대비 A/B(%)
사 협	4,229,972	4,324,981	97.8
	69.9	69.1	
농 협	1,610,844	1,719,944	93.7
	26.6	27.5	
기 타	211,677	218,513	96.9
	3.5	3.5	
계	6,052,493	6,263,438	96.6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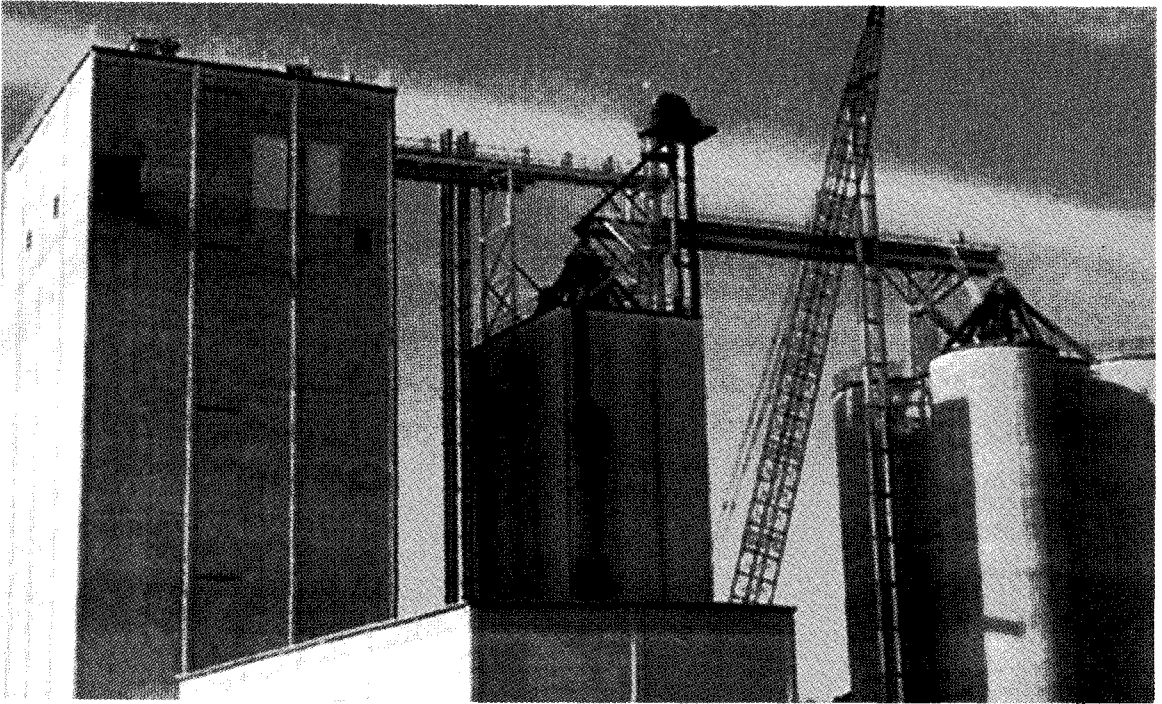
치중하고 있는 농협사료가 6.3% 감소함으로써 사협산하 일반사료회사들의 2.2% 감소에 비해 더 큰폭으로 감소했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오던 계열화업체 등으로 구성된 기타제조업체의 생산량도 최근의 축산업 경기를 반영해 4.3%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해 농축협 통합이후 일반 사료제조업체의 사료가격 인상과는 반대로 가격인상 시기를 한달 정도 늦추는 등 적극적인 시장확대에 나서고 있는 농협사료의 생산량이 여타의 생산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농협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가축 사료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 큰 폭의 농협사료 생산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위축되고 있는 국내 사료시장을 놓고 농협,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판매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가운데 일부 사료회사들은 OEM판매나 위탁생산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내 사료시장의 판도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어 나갈 전망이다.

2. 배합기 원료수급 및 가격전망

금년들어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곡물의 세계원료시장은 비교적 안정을 보여왔으나, 연초에 영국에서 촉발된 BSE 파동으로 인해 동물성단백질 특히 육골분(MBM)과 어분사용이 중단되면서 이들 품목의 대체원료인 식물성 단백질원료의 수요급증이 예상되어 대두박, 채종박, 면실박 등은 큰 폭으로 급등하



였다.

이같은 식물성단백질 원료가격의 급등은 여타 부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소맥피, 콘구르텐 가격이 상승했고, 대체원료인 라이신, 메치오닌 등의 가격도 급등세를 보였다.

또한 여기에도 지난해 11월말까지만 하더라도 1,100원대에서 비교적 하향 안정세를 보여오던 환율이 연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여 1,270원대까지 상승하였고 이로인한 원가부담은 사료회사들의 경영압박을 가중시켜 결국 2월초 1,200원대의 환율을 감안한 6~8%의 가격인상을 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까지만해도 IMF이후 11차례나 떨어졌던 배합사료 가격이 금년부터 상승추세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이같은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율인상은 계속 이어지며 원가상승을 가중시키며 사료회사들의 경영을

어렵게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부족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료용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며,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가치가 하락해 그만큼 수입에 따른 원가부담이 늘어

표3. 주요 사료원료 가격 추이

(US\$/톤, C&F 기준)

원료명	2001.12월 평균	200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옥수수	191.1	119.7	117.1	115.7	111.9	109.8
소맥	125.0	115.5	115.0	116.0	115.0	114.0
소맥피	79.0	79.0	83.5	88.0	92.0	92.0
대두박	260.1	245.6	227.3	216.6	215.1	222.5
채종박	185.0	188.8	186.0	172.0	185.0	185.0

표4. 환율 추이(매매기준율)

(단위 : 원/US\$)

2000.11월 평균	2001.1월	2월	3월	4월	5월
1,150.9	1,272.8	1,252.4	1,288.4	1,325.6	1,303.6

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원화가치가 10% 하락할 경우, 사료업체가 안게되는 원가상승부담은 5~6%에 달한다.

그런데 4월말 배합사료가격은 환율이 1\$에 1,200원대를 기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다시 원화가치가 크게 떨어져 1,340원대를 유지하게되자 사료업체가 안고 있는 원가상승 부담은 10% 이상에 달하여 6월초 또 한차례의 사료가격 인상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 배합사료업체는 이같은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합사료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고 이로 인한 가동률 저하 등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가격 실질 인상폭은 할인을

등을 통해 당초 인상폭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들어 경제여건이 호전되어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환율이 다소간 안정되고 주요 사료원료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의 배합사료 가격은 다시 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금년들어 전축종에 걸친 축산물 가격이 비교적 상승세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배합사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부담은 다소 상쇄되고는 있으나 축산물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 비중을 감안할 때 환율 및 국제사료 원료 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이 요구되고 있다. **양계**

『축사 우레탄 단열시공 제안』

◎ 생산성은 축사의 단열수치에 비례한다!!

- 여름은 시원하게(생산성 향상)
- 겨울은 따뜻하게(육계 : 연료비 절감)
(산란계, 종계 : 사료비 절감)

전화상담 환영

◎ 고품질 공장도가 시공!!

- 프레온 가스 대체물질 H, C, F, C 141B 사용으로 기술력과 친환경적 사업장 인정
- 난연폼, 정량의 원액, 적정밀도, 시공노하우로 기술력 확보, 항시 시공차량 12대 보유로 시공 납기 만족
- 폴레우레탄 단열시공에 대하여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진천지역 육계농가 10개 농가가 시공하여 시육 중 앞으로 계속적인 우레탄 시공 경제성 확인 대만족 진천은 축사 단열의 선진지역

폴 텍 시스템

첨단 무창계사 시설, 컨설팅

전 화 : (031) 883-0254

휴대폰 : 016-9557-1187